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도시 인천</b>
	배포일자	2023년 8월 21일(월) 총 6매	
담당 부서	문화유산과	담당 자	• 유산보호팀장 신교훈 ☎440-4481 • 담당자 정정민 ☎440-44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오전 9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용암 응진전’ ,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 1958년 건립, 한국전쟁 이후 시대상을 반영한 건축양식 사찰 -
- 전쟁 직후 인천시민들의 시주로 건립, 전쟁고아 보육사업 등 전개 -

인천 미추홀구 수봉산 자락에 위치한 ‘부용암 응진전’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가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부용암 응진전’을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

이곳은 미추홀구 부용암은 비구니 사찰로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을 위한 쉼터로 사찰을 제공했으며, 당시 많은 전쟁고아를 수용하고 돌보았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인천시에서 사찰 내 전각이 국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강화 정수사 법당, 강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이 있는데,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이번 ‘부용암 응진전’이 최초다.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① 강화 정수사 법당(‘63.1.21.지정), ② 강화 전등사 대웅전(‘63.1.21.지정), ③ 강화 전등사 약사전(‘63.1.21. 지정)

‘부용암 응진전’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8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전통 건축양식에서 가장 선호하는 평면 형식(정면 3칸, 측면 3칸)보다 협소한 측면 2칸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의 공포형식 역시 전통적인 초익공 다포방식으로 배치했으며, 지붕 서까래의 구성 역시 전면은 겹처마로 구성하고 후면은 홑처마로 구성하는 등 전통 시대의 건축구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와 변형은 19세기 말부터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경향으로 점점 심해지는 재료(목재)의 공급부족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화려한 의장이 강조되는 사회상에 의한 것으로 시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부용암 응진전’이 건축양식과 규모,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도 과거 전통 시대의 건축구법과 의장성을 계승하려 했던 흔적이 보이며, 당시 인천의 어려운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용암 주지 선덕스님은 “부용암은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민 128명의 시주로 건립됐고, 전쟁 직후 고아 보육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자선사업에 공헌하는 등 인천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부용암 응진전’은 한국전쟁 직후 부족한 물자와 경제적 여건 속에서 건립된 전통사찰로 당시의 시대성과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면서 “앞으로도 근대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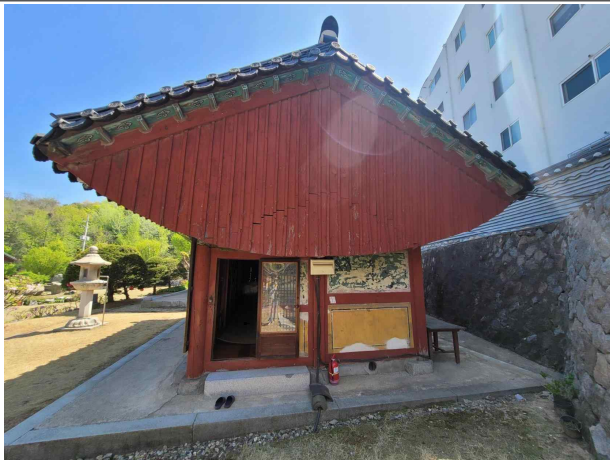
## <등록 고시 대상문화재 사진>



부용암 응진전 정면



우측 사선에서 바라본 응진전



부용암 응진전 측면



응진전의 공포와 처마



응진전 문 하단의 귀면문(중앙)과 연화문(좌우)



응진전 내부 전경





정면 중앙의 약사여래좌상, 16나한상, 16나한도



향우측의 치성광여래도



치성광여래도 화기(좌측부분)



향좌측의 산신도와 독성도



독성도 화기



좌측 벽면의 신중도

**붙임****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94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예정)명칭	수량	면적·규모	건립연대	소재지	소유자 (주소)
부용암 응진전	1동	연면적 26.79㎡ (1층)	1958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북로 34 (도화동 624-240)	재단법인 선학원 (서울 종로구)

나. 등록 사유

- 부용암 응진전은 근대기 시대성과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보여 주는 건축물로서 한국전쟁 직후의 부족한 물자와 경제적 여건 등 어려운 건축상황 속에서도 규모를 갖춘 종교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기울인 정성이 건물 곳곳에 표현되어 있음.
- 전통양식의 익공양식으로 다포의 모습을 취하여 이전보다 더욱 화려한 의장이 강조되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점, 건물 전면은 겹처마로 구성하고

후면은 홀치마로 구성한 점, 건물 정면 출입문 상부에 둔 일본식 교창(交窓)은 일제강점기 일본건축의 영향으로 창호의 모양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당대의 건축적 상황을 상징한다는 점, 근대적인 재료인 유리를 여닫이문에 부착하여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한 점 등에서 시대성·역사성을 가진 전통사찰 건축물임. 따라서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 가치가 있음.

### 3. 등록일자 : 시보 고시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032-440-44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지도면 1부

[붙임]

☐ 고지도면

